

※아산재단은 'SOS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재단 산하의 아산병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에게도 SOS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감사편지를 소개합니다.


뜻밖의
희망
한
줄기,
잊지
않고
감사
히
살
겠
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정숙희라고 합니다. 한 번도 만나 본 적 없지만, 저를 도와주신 아산재단 모든 분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연필을 듭니다.

올해 53세인 저는 지난 2012년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청천벽력 같았지요. 하루가 멀다고 받아야 하는 신장 투석은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업무를 마친 늦은 시각, 가벼운 발걸음의 남들과 달리 저는 천근만근 몸을 이끌고 병원으로 향해 투석을 받았습니다.

평소 숙면을 하지 못하는 편이라, 원체 피곤을 달고 살았습니다. 거기다 투석까지 받은 다음 날 아침이면 온몸에 성한 곳이 없었지요. 그렇다고 직장을 쉬기에는 뼈든한 상황이었습니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남편까지 암을 앓고 있었기에, 그나마 몸이 성한 제가 집안 가장의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20년 6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김없이 퇴근 후 야간 투석을 받고 잠에 막 들려는 순간,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공여자가 생겼으니 내일 입원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2015년 뇌사자 신장 이식 신청을 하고, 6년간의 기약 없던 기다림이었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설레던 마음도 잠시 걱정이 앞서왔습니다. 그나마 다니는 사무실도 못 나가면 집안 살림은 누가하고, 당장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그렇게 부산대학교병원에 입원해 2020년 6월 18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1인실로 옮기는 순간에도, 이식 수술 결과가 좋으며 미소 짓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 제 머릿속은 병원비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부산대학교병원 사회사업실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사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아산재단에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될 수도 있으니 너무 기대하진 말라는 말도 덧붙이셨으나, 희망이 생긴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짧았지만 길게만 느낀 심사기간이 끝나고, 지원 대상자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던 제 삶에 희망 한 줄기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어, 이렇게 글 한자 적는 것 외에 고마움을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부산대학교병원 사회사업실에 감사드립니다. 무지했던 제게 다방면으로 의료비 지원 기회를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아산재단에는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제 처지에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아산재단이 주신 도움이 헛되지 않게 건강을 꼭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굳은 다짐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도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을 주신 아산재단처럼 언젠가 누군가를 꼭 돕고 싶습니다.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글 정숙희 부산광역시

